

##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단독 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단독 환담과 만찬을 함께 하시었다.

대결과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드높은 열망과 진취적인 노력, 비상한 결단에 의하여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헬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이 하노이로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2월 27일 18시 30분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역사적인 두번째 상봉과 단독환담, 만찬이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류하시는 《멜리아》호텔앞에는 이 세기적인 만남을 취재하

고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기자들과 하노이 시민들,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인파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용차를 타시고 경호차량들의 호위를 받으시며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상봉장소인 《메트로폴》호텔에 도착하시었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상봉하시게 될 《메트로폴》호텔의 《라 베란다》면담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8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시고 굳은 악수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지난해 싱가포르수뇌회담과정과 그 이후 여러차례의 친서교환을 비롯한 계기들을 통하여 친분이 두터워지신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는 반갑게 인사하시며 덕담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신과 오해, 적대적인 눈초리들과 낯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 버리고 극복하며 다시 마주 걸어 260일만에 하노이까지 왔으며 이 시간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다고 하시면서 이번 회담에서 모두가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것이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이번 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시었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이어 단독환담을 진행하시면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단독환담을 마친 후 친교만찬을 함께 하시

었다.

우리측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상대측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백악관 비서실장 대리 마이크 말베이니가 참석하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을 모시고 두 나라 인사들이 윈락에 친근하게 둘러앉아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만찬에서는 싱가포르수뇌상봉이후 두 나라 관계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하노이수뇌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세계의 관심과 기대에 맞게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찬이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과 작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역사적인 제2차 조미수뇌회담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멜리아》호텔로 향하시었다.

# 제 2 차 조미수뇌상봉 제 2 일 회담 진행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 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28일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 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조미수뇌 회담장소인 하노이의 《메트로블》 호텔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 다시 상봉하시고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에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역사적인 로정에서 팔목할만 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이에 토대하여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시였다.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도적인 조치들이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고 조미 두 나라사이에 수십여년간 지속되어온 불신과 적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공동의 목표들을 실행해나가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시고 그 방도를 진지하게 논

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은 70여년의 적대관계속에서 쌓인 반목과 대결의 장벽이 높고 조미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려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들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여 함께 헤쳐나간다면 능히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번째로 되는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반도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나가며 하노이수뇌 회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트럼프대통령이 먼길을 오고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전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미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있는 계기로 된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에 도착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26일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하시었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을 친선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맞이하게 된 월남의 국경역인 동당역은 두 나라 국기와 아름다운 꽃들과 환영장식물들로 단장되어있었으며 역구내와 그에 잇닿은 연도에는 수많은 군중들, 청소년학생들, 귀여운 어린이들, 민족옷차림을 한 녀성들이 이른아침부터 나와 환영분위기로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보 반 트영 선전교육부장, 마 이 띠엔 중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판공실 주임, 레 호아이 총 외무성 부상, 팜 티 호영 타잉 월남공산당 량선주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월남당 및 정부간부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또한 김명길 월남사회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역에 나와있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신 전용렬차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성, 도시들을 경유하여 월남의 국경

역인 동당역에 도착하였다. 군악대의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차에서 내리시어 영접나온 월남당 및 정부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월남사회주의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녀성이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역앞에 운집되어 있는 환영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전용차에 오르시어 숙소인 《멜리아》호텔로 향하시었다.

전용렬차가 도착한 국경역에서부터 숙소가

위치하고있는 하노이시에 이르는 수백리 연도에는 수많은 각계층 월남인민들이 겹겹이 줄지어 늘어서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높이 흔들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숙소에서 뵈는 등 하노이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황 쑹 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상임부주임, 월남공안성 부상 상장 부이 반 남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월남당과 정부와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와 각별한 레우에 사의를 표시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제2차 조미수뇌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2월 26일 웰남 하노이에 도착하시어 제2차 조미 수뇌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멜리 아》호텔에서 제2차 조미수뇌 회담의 성공적보장을 위하여 조미 두 나라가 현지에 파견한 실무대 표단사이의 접촉정형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2월 26일 오후 월남사회주의공화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사관 성원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대사관의 사업실태와 형편을 료해하시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사관 성원들과 가족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본사기자

##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비범한 정치실력과 천재적인 외교지략, 담대한 결단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오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흠모의 목소리가 끊이지 울려나오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넷포털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날 행성에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조선의 김정은 최고령도자이다.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그의 령도예술에 국제사회가 경탄하고있다.

위대한 정치가, 결출한 령도자에 대한 매혹과 찬탄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불가능을 모르고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시는 강대성의 상징이다.

세계는 그의 모습에서 력사의 시련과 모진 광풍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불의를 짓부시며 강대해지는 정의의 힘을 보고있다.

지금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것은 국제사회의 각광을 받으면서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어떤분이신가 하는 문제이라고 하면서 이란의 일나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각각께서는 많은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멋진 령도자》,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칭송받으신다.

그이의 외교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단히 전격적이고 과격적이며 포괄적이라는것이다.

여러차례의 중국방문과 조미 수뇌상봉이라는 수외외교활동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어 특대사변들을 련속 안아오신 김정은각각의 박력있는 외교활동방식은 세 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인디아의 인터넷통신보이스 오브 밀리언즈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높은 지도력과 특출한 자질을 갖춘 국가 정치가이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정치가, 창조성이 높고 실천이 완강한 지도자,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김정은 령도자의 위인적품목에서 세계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김정은 령도자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하게 펼쳐지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당력과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이시라고 강조하였으며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김정은 최고령도자에 대한 흠모와 신뢰는 조선의 지평을 벗어난 세계에 퍼져가고있다고 전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립종합대학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각각께서는 독창적인 로선, 자주적인 정책으로 조선정치가이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창조성이 높고 실천이 완강한 지도자,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연치 않는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의 앞길에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캄보자의 아까베통신은 이렇게 평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외교활동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라는 전략적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데로 지향되고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참으로 뛰어난 외교의 거장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김정은 동지께서 앞으로 조선의 지평을 벗어난 세계에 퍼져가고있다고 전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립종합대학 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각각께서는 독창적인 로선, 자주적인 정책으로 조선정치가이다, 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창조성이 높고 실천이 완강한 지도자,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 《김정은위원장의 월남방문 과정에 더 빛나는 일심단결》

남조선언론이 2월 27일 《김정은위원장의 월남방문 과정에 더 빛나는 일심단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이 월남을 방문 중이다.

김정은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 회담과 월남공식친선방문일정으로 월남에 오랜 기간 머물게 되며 철차이동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열흘이상이나 조국을 떠나있는 것으로 된다.

이번 김정은위원장의 월남 방문을 위한 출발소식으로부터 26일 도착한 소식까지 북의 언론들이 신속하게 보도하고있다.

그 이유는 김정은위원장을 그리워하는 인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할수 있다.

북의 인민들은 평상시에도 자기 사업하는 공장이나 일터를 김정은위원장이 현지지도하시기를 예타게 기다리고있다.

언제면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맡은 일에서 사업성과

를 내며 늘 김정은위원장을 가슴에 품고있다.

그런데 김정은위원장이 머나 먼 외국방문길에 올랐고 이번에는 기간도 오래 걸린다.

조국에 있을 때에도 늘 보고싶고 소식을 예타게 기다리고있는 인민들은 외국방문길에 오른 최고지도자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울것인가.

신속한 보도는 이런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린것이 아닐까.

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위원장이 월남으로 출발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민들은 김정은위원장이 가는 곳의 날씨도 알아보고 안경을 기원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위원장이 외국방문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날 승리의 보고를 하기 위해 모든 인민들과 장병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있다고 한다.

김정은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날인 24일 일요일인데도 쉬지 않고 직장에 나와 일을 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 《로동신문》은 《청사에 길이 빛날 애국헌신의 대장정》, 《농업전선을 굳건히 지키리》, 《그이의 발걸음》, 《각지 당 일꾼들 전투현장으로, 대중속으로》, 《그리움을 안고 더 높은 석탄산을》,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맹세와 실천으로 불타는 위훈의 낮과 밤》, 《그리움의 아침》 등 김정은위원장을 그리워하며 자기 초소에서 혁신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도하였다.

최고지도자는 인민을 위하여 머나먼 외국방문길에 오르고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조국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을 먼저 만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과 최고지도자에게 기쁨을 주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인민들의 모습은 김정은위원장의 월남방문기간에 북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심단결의 화폭이 수놓아진것이라고 볼수 있다.

본사기자



